

# 《神仙傳》靈物の 작중 변화 양상

-현실 수용과 내부요구 부응

권영애\*

## <目 次>

1. 서론
2. 변화의 양상
  - 1) 현실 수용
    - (1) 중첩영물 등장 양상 : 〈衛叔卿〉
    - (2) 한 작품에 여러 영물이 등장하는 양상 : 〈王遠〉·〈茅君〉·〈李少君〉
    - (3) 한 인물이 상황에 따라 다른 영물을 활용하는 양상 : 〈王遠〉·〈茅君〉·〈李少君〉
    - (4) 성선 입증 역할 약화 양상 : 〈魯女生〉·〈劉根〉
  - 2) 작품 내부의 요구에 따른 축소와 확대 양상
    - (1) 주제 : 〈沈羲〉
    - (2) 구성과 변신 모티프 : 〈壺公〉
    - (3) 부연수식 : 〈葛玄〉
3. 결론

## 1. 서론

문학 작품도 그 전통을 지속하고 당대의 변화를 반영한다. 작가는 자기 시대의 조류를 호흡하며 자신의 개성과 이념을 담아 이야기하지만 전통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작가는 과거 작품에서 창작관습을 익히고 그 의식 여부를 떠나 그 틀에서 자기 시대의 이야기를 주조한다. 인간의 본질에서 유래한 문학의 기본양식—서정양식, 서사양식 극양식이 시공을 초월해 지속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 건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부교수, kya1218@konyang.ac.kr

가지로 과거 위대한 작품의 유산은 후대에 모티프로 활용된다. 비평가나 독자도 작품들의 그러한 계승의 면모에서 문학의식, 범주, 장르를 형성하고 문학사의 견지에서 그 작품을 조망하고 평가하며 계보를 체계화할 수 있다. 지속과 변화는 개별 문학작품 구조의 두 축이며 배경인 것이다. 그런데 가능한 한 후대의 작품들은 전대의 작품들로부터 일탈하려 한다. 달라진 환경의 영향이 서사의 내용을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일탈을 배태하려 하며 작품의 개성을 추구하려 한다. 전대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면 그 작품은 전대의 아류가 되며 전대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활용한다면 그 작품은 일단 존재할 이유를 갖게 된다. 새삼스럽지만 전대의 유산은 후대의 작가들에게 값진 자산이면서도 도전하여야 할 압력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繼往開來', 즉 전대의 전통을 이어 기초로 삼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나아가 미래의 유산이 될 새로운 모티프를 개발한 작품들을 우리가 문학사의 견지에서 주목해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갈홍葛洪(283-363)의 《神仙傳》은 《山海經》에서 시원하여 19세기 말 宣鼎(1835?-1880)의 《夜雨秋燈錄》에 이르는 신선 관련 작품의 오랜 역사에서 재차 부각되어야 할 작품집이다. 본고는 역대 신선 관련 작품의 지속과 변화를, 靈物<sup>1)</sup>을 기본 주제로 하여 고찰해온 연구들<sup>2)</sup>의 후속이며, 특히 前稿<sup>3)</sup>에서

1) 역대 신선 작품에서 주요한 지향은 주지되어 있듯, 시간 초월과 공간 초월이다. 靈物은 그러한 신선 관련 작품의 생성을 애초에 촉진한 근원 모티프로 그 최초 원형은 동방 神鳥토템의 신조이다. 《山海經》에 등장하는 鳥人一體 존재는 그 후속이고, 이 존재는 무당을 거쳐 《列仙傳》 등에서 신선과 영물로 분화되고 있다. 이후 작중에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상보하는 관계이며, 자력비승하는 신선의 모습에도 영물이 잠재되어 있다. 《列仙傳》에서 정립된 영물의 역할은, 첫째 신선 성취 입증, 둘째, 신선의 활동 기여, 셋째, 인간의 공간 초월 시혜 배려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상상> (《중어중문학》 제3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12) 참조.

2) 참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상상>, 《중어중문학》 제3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12. 참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상상>, 《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12. 참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상상>, 《중어중문학》 제4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 12. 참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변화 상상>, 《중어중문학》 제43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8. 12. 참고, <《神仙傳》 영물의 변화와 후대의 지속 상상>, 《중국문화연구》 제17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0. 12.

3) 참고, <《神仙傳》 영물의 변화와 후대의 지속 상상>, 《중국문화연구》 제17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0. 12.

조명하지 못 하였던 나머지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작업으로 《신선전》의 ‘開來’ 면모를 거의 밝히는 데 기여하려 한다. 이 고찰이 결여된다면 《신선전》의 영물 연구는 차치하고 역대 영물의 논구에서, 반복되는 특정 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래와 변용의 고찰이 불완전하게 된다. 후대 텍스트도 현재 18세기의 《聊齋志異》와 19세기의 《야우추등록》에 국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列仙傳》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 말해 후대 작품들의 계승을 전제로 하거나 기대하면서, 劉向(B.C. 79-B.C. 8)의 《열선전》에 없는 《신선전》의 변화를 탐색해 그 양상을 부각하며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배경이나 요인의 분석에서 주로 《신선전》 내부의 정보와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작중 현실이 허구를 틀로 하여 그려지고 있지만 그 소재와 주제의 원천이 어디까지나 그 시대의 현실이란 점을 새삼 상기하고자 하며, 한 작품집의 작품들 사이에는 연관이 있고 또 작품에서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을 해명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2. 변화의 양상

前稿에서 조명된 《신선전》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열선전》과는 달리 ‘신선 아닌 도사들이 영물을 활용하는 사례들’이었다. 후대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도사의 영물 활용 사례들은 《신선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하나만으로도 《신선전》이 《열선전》의 후속이기는 하지만, 후대 신선 관련 작품에서 《열선전》에 이어 주요 대본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위진 《신선전》의 시대는 대략 동한 이전 《열선전》의 시대와는 달리 권력의 부침과 전란의 파장이 격심한 가운데 도교의 이론이 전개되며 교단이 정립되고 현실 정치에도 간여하는 변수가 되었으며 귀족과 민중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신선의 도를 추구하기도 하던 시대였다.<sup>4)</sup> 특히 단약 복용이 성선의 방안이 되었으며 단약의 종류도

4) “早期의 민간도교는 민간에서 생겨나 압박과 착취에 반항하고 평등 우애를 요구하며 병을 몰아내고 養生하려는 하층 노동인민의 소망을 반영하였다. 張角의 太平道와 三張의 五斗米道는 인민의 이런 희망에 순응하였다. 張魯의 오두미도는 북방으로 쫓겨난 뒤 조조에게 농락당했고, 장노 사후에 張陵을 천사로 신격화시켰다. 이후 天師道가 인정받게 되면서 초기의 민간 도교는 천사도로 대체되었다. 태평도의 기세가 진압되고 오두미도가 북천함에 따라 초기의 민간도교

다양하고, 세속의 길흉화복을 제어하는 부적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관방 도교는 갈홍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치열한 수련이 있어야 하지만 신선 성취의 자질은 거의 천부로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류와 생각들은 《신선전》에 수록된 작품들에 반영되어 있다.<sup>5)</sup> 한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 부작용과 반발의 사정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i)모군은 나이 열여덟에 향산으로 들어가 도술을 배워 20년이 흐른 후 도를 성취하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부모가 살아 계셨는데 아들을 보자 노하여 꾸짖었다. “너는 사람의 아들로서 효를 다하지 못하였다. 부모를 공양하지는 않고 요망한 것을 찾아 사방을 유랑하며 쪼다녔다.” 그러고는 작대기를 들어 매질하려 하였다.<sup>6)</sup>

ii)그러나 동중은 사람이 강직하고 오경을 널리 배웠지만 도술에는 전혀 통하지 못하였고 늘 약을 복용하며 도를 배우는 자를 비웃곤 하였다. 게다가 여러 차례 무제에게 글을 올려 사람의 수명이란 끝없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노쇠는 일상의 법칙으로, 도술을 배운다고 연장할

는 자체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켜 통치 계급의 수용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조기의 민간 도교가 새로운 형세 아래서 생존과 발전하려면 하층민민의 희망만을 반영할 수는 없고 통치 계급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했다. 통치계급은 무엇을 요구했나? 위진시기는 격렬히 어지러운 사회였고 황권이 교체되고 내란이 끊이지 않아 사족의 생명을 아침에 저녁을 보장할 수 없어서 평소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에 더 관심을 가졌다. 다른 방면으로는 그들은 이전의 통치자들 처럼 인간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싶고 부귀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西天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리하여 長生成仙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절박한 현실요구가 되었다. 이런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기의 민간도교는 상층 사족 신선도교와 하층 민간도교로 분화되었다. 갈홍은 이런 분화시기의 대표인물이며 그의 《포박자 내편》은 사족 도교의 이론을 체계화하여 長生成仙의 근본 중지를 확립하였다. 그는 조기민간도교의 질병 치료, 災禍 제거 위주보다는 煉丹長生, 修道成仙을 도인이 추구해야 할 근본 목표로 삼았다.”, 徐儀明·冷天吉 공저, 《人仙之間》-《抱朴子》與中國文化(開封·河南大學出版社, 1998) 16-17쪽 참조.

5) 줄고, 〈《神仙傳》 영물의 변화와 후대의 지속 양상〉 (《중국문화연구》 제17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0, 12) 참조.

6) “茅君十八歲入恒山學道, 積二十年, 道成而歸. 父母尚存, 見之怒曰: 〈爲子不孝, 不親供養而尋逐妖妄, 流走四方〉 舉杖欲擊之.” 〈茅君〉, 갈홍 찬/임동석 역주, 《신선전》 (서울 고즈윈, 2006), 178쪽, 184쪽. (전고에 이어 이 책에서 《신선전》의 원문과 역문을 인용하며, 필요와 취지에 따라 일부 표현을 달리하였다.)

수 없고, 비록 이상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천성일 뿐, 도술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간언을 하였다.<sup>7)</sup>

iii)성모가 때로 질병에 걸린 자를 고쳐 구해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을 몰래 다녀오기도 하자, 참다못한 두 씨는 더욱 화가 치밀어 그만 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제 아내 성모는 요악한 인물입니다.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관리가 성모를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다.<sup>8)</sup>

iv)이에 유근은 태세성의 기운이 있는 방향으로 3자 정도 구멍을 파고 모래로 그 속을 채운 후 술을 부으라고 하였다. … 그 뒤 태수 사기가 부임하였다. 그는 유근이 요망한 짓을 한다고 여겨 그를 죽이려 하였다.<sup>9)</sup>

이 사례들은 작중에서 모두 큰 긍정을 유도하는 작은 부정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선도 수련과 도술을 작가와는 다르게 보고 비판하는 당대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에는 요망한 도술에 빠져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방황하는 자식의 불효가, ii)에는 수명과 건강은 도술과 무관한 자연의 섭리라는 유교 이성주의자의 배척과 경멸이, iii)에는 도술에 분방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여염 부녀의 행태가, iv)에는 별 장관도 실질도 없는 술법의 모습과 의혹이 집착되어 있다. 《신선전》 영물의 변화 고찰에서 이러한 사정 또한 마땅히 병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만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영물도 《열선전》 시대와는 다르게 변모한다고 하겠다. 즉 신선설화의 유행과 더불어 성립되었던 戰國 중엽 이후의 원시도교 시대<sup>10)</sup>와 달리 이러한 비판과 반발을 제어하기 위해 신선 관련 작품의 내용과 주제는 세속과 더 연관되면서 이데올로기화

7) “仲爲人剛直，博學五經，然不達道術，常笑人服藥學道，數上書諫武帝，以爲人生有命，衰老有常，非道術所能延益，雖見其有異，以爲天性，非術所致。”，〈李少君〉，같은 책，220-221쪽，225쪽.

8) “聖母或行理疾救人，或有所之詣，杜患之愈甚，告官訟之，云：聖母姦妖，不理家務，官收聖母付獄。”，〈東陵聖母〉，같은 책，240-241쪽.

9) “根教於太歲宮氣上穿地作孔，深三尺，以沙着中，以酒沃之……後太守史祈，以根爲妖妄，欲殺之。”〈劉根〉，같은 책，3쪽，334쪽.

10)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민음사, 2005) 246-251쪽 참조.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견지에서 《신선전》 〈서〉의 다음 언급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향이 지은 작품들은 너무 간략해 아름다운 事行들이 빠져 있다. 이 《신선전》이 神妙하고 奇異한 일들을 모두 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대체를 존치하게 되었다. 유향의 《열선전》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빠뜨리고 버린 것도 많다.<sup>11)</sup>

이러한 의도에는, 서사의 확대, 인물의 증가와 구성의 진전, 도교 이론과 도술의 등장, 대사와 묘사의 증가 등이 예고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열선전》 시대에 신성하고 고고하였던 영물의 비중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또한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 사례는 우선 보기에 《열선전》에서와 별 변화 없는 그 단순한 지속의 사례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모몽은 자가 초성으로 화산에서 도를 배우고 단약을 성취하여 적룡을 타고 승천하였는데 바로 진시황 때였다. 동요에 “신선술을 얻은 모 초성은,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 태청궁으로 갔다네. 때때로 현주로 내려와 적성에서 놀기도 하지. 그 세대를 이어 지금 나 모영이 태어났네. 임금이 만약 배운다면 납월이 가평으로 이름이 바뀌리라.”라고 하였다.<sup>12)</sup>

영물이 등장하는 정황에 별 변화가 없으며 《열선전》에서와 같이 영물 용은 모몽의 신선 성취를 잘 입증하고 있다. ‘적룡을 타고 승천’ 하는 모습은 《열선전》의 〈陶安公〉에서 주물사 도안공이 불을 다루는 능력으로 成仙하는 국면과 비견된다.<sup>13)</sup> 하지만 〈陶安公〉과는 달리 그 앞에 조건이 있다. ‘도를 배우고 단약을

11) “卽知劉向所述, 殊甚簡略, 美事不舉, 此傳雖深妙奇異, 不可盡載, 猶存大體, 竊謂有愈於向, 多所遺棄也.”, 〈序〉, 임동석, 앞의 책, 17-18쪽.

12) “濛, 字初成, 學道於華山, 丹成, 乘赤龍而昇天, 卽秦始皇時也. 有童謠曰: 「神仙得者茅初成, 駕龍上天昇太清, 時下玄洲戲赤城, 繼世而往在我盈, 帝若學之臘嘉平.」” 〈茅君〉, 같은 책, 177-178쪽, 184쪽.

성취하여' 이다. 사소한 삽입으로 보이지만 주목하여야 할 《열선전》과의 커다란 차이이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직능이나 덕행만으로는 신선이 될 수 없고, 스승에게서 선도를 배워야 하고 단약을 만들어 복용하여야 신선이 될 수 있다. 영물의 조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밀려나 있다. 참고로 《열선전》에서는 용이 9차례 등장한 비중 높은 대표 영물이었는데<sup>14)</sup> 《신선전》에서는 출현 빈도가 대폭 줄어들고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단서로 하여서도 우리는 《신선전》의 변화를 가늠하는 데에 영물 관련 양상이 한 초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검토에서도 시사되었듯이 신선전의 영물 변화 양상을 점검해본 결과 변화의 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시대의 현실 수용에 관련된 계열이며, 다른 하나는 독자에게 메시지를 보다 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작품 내부의 구조 조정에 관련된 계열이었다.

## 1) 현실 수용

### (1) 중첩영물 등장 양상: 〈衛叔卿〉

《열선전》에서는 영물이 단독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신선전》의 〈衛叔卿〉 등에서는 그 관행과 어긋나게, 영물인 구름을 흰 사슴이 끌고 있다. 흰 사슴도 구름처럼 영물이기에 문제 된다. 《열선전》에 없는 중첩영물의 사례이다.

위숙경은 중산 사람으로 운모를 복용하여 신선이 되었다. 한나라 원봉 2년 8월에 한 무제가 궁전에서 한가하게 있을 때 홀연히 어떤 한 사람이 흰 사슴이 모는 구름을 타고(乘浮雲駕白鹿) 궁전 앞에 멈추는

13) “도안공은 육안의 주물사였다. 자주 불을 다루었는데 … 큰 비가 내리는 속에서 도안공은 붉은 용을 타고 동남쪽으로 날아갔다.(陶安公者, 六安鑄冶師也 數行火 … 大雨, 而安公騎之東南上)”, 유향 지음/김장환 옮김, 〈陶安公〉, 《열선전》(서울 예문서원, 1996) 226-227쪽 참조. 줄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7집, 2005. 12, 184-186쪽 참조.

14) 줄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7집, 2005. 12, 184-186쪽 참조. 작품마다 용의 형상도 조금씩 달랐다.

것이였다. 무제가 놀라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중산의 위숙경이라고 합니다.” 무제가 말하였다. “중산이라면 나의 영토에 있는 신하 신분이 아니냐?” 이 말에 위숙경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더니 즉시 사라져 버리는 것이였다.<sup>15)</sup>

‘흰 사슴이 모는 구름을 타고’에서 보듯 위숙경은 중첩영물을 타고 낙하하여 한 무제에게 이른다. 작가는 구름 앞에 관형어 ‘浮로 그 이동을 표현하였지만 흰 사슴까지 등장시켰다. 즉 구름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더불어 수레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두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두 영물이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중첩이 단순한 부가가 아니라 신선에게도 품격과 서열이 있으며 위숙경이 보통 이상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영물과, 그 영물을 위한 영물의 등장 및 이러한 함축은, 위진 시대 도교의 비전에 관료체제를 갖춘 仙界가 설정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그리고 작중에서는 인용 말미에 함축되어 있는 대로, 속기에서 벗어난 위숙경의 방외의 성격과도 관련되며 어울리기에 〈위숙경〉의 영물들은 작품 구조의 정합을 고려한 장치로도 주목된다. 이러한 중첩영물은 《요재지이》의 〈彭海秋〉<sup>17)</sup>와 《야우추등록》의 〈髮繡佛〉·〈鹿女泉〉에서도 지속되고 있다.<sup>18)</sup>

15) “衛叔卿者, 中山人也, 服雲母得仙. 漢元鳳二年八月壬辰, 武帝閒居殿上, 忽有一人, 乘浮雲駕白鹿集於殿前. 帝問之爲誰, 曰: 「我中山衛叔卿也」. 帝曰: 「中山非我臣乎?」 叔卿不應, 卽失所在.” (〈衛叔卿〉, 갈홍/임동석, 앞의 책, 72쪽, 74쪽.

16) 관료체제화한 선계의 모습은 《신선전》의 〈沈羲〉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제는 빌 수 없었고 다만 노군이 동쪽으로 향해 있었으며, 좌우에서 자신에게 지킬 일을 일러주는 것을 듣느라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궁궐을 보았더니 울울하여 마치 구름이 피어오르는 기운 같았고 오색과 현황의 온갖 색채의 물건들은 그 이름도 알 수 없었다. 모시는 신하가 수백 명이었는데 … 뜰에는 구슬나무가 있어 무성하게 덮여 무리를 이루어 자라고 있었고, 용과 호랑이, 그리고 벽사가 그 안에서 즐기며 놀고 있었다. 다만 동철 소리 같은 낭랑한 음악이 들렸는데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없었다. 네 벽은 밝은 불꽃이 일었으며 그곳에 부적의 글씨가 씌어 있었다.(不得見天帝, 但見老君東向坐, 有左右勅羲不得謝, 但默坐而已. 見宮殿鬱鬱, 有如雲氣, 五色玄黃, 不可名字, 侍者數百人…庭中有珠之樹, 蒙茸叢生, 龍虎辟邪, 遊戲其間. 但聞琅琅有如銅鐵之聲, 不知何物. 四壁熠熠, 有符書著之.)” (같은 책, 88쪽, 90쪽.

17) 줄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2006. 12), 417-419쪽 참조.

18) 줄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2007. 12)



(2) 한 작품에 여러 영물이 등장하는 양상: 〈王遠〉 · 〈茅君〉 · 〈李少君〉

중첩영물에 이어 살펴볼 양상은 한 작품에 여러 영물이 등장하는 사례이다. 먼저 〈왕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사례 역시 《열선전》에서는 볼 수 없었다. 왕원은 천하의 성쇠와 九州의 길흉을 미리 알고 관직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수도 하여 도를 성취하고 어느 날 시해선이 되어 사라진다. 그 후 왕원이 채경의 집에 나타난다.

……왕원이 아직 채경의 집에 이르기 전 금고소관의 온갖 음악소리와 인마의 소리가 들려왔다. …왕원을 보았더니 원유관을 썼으며 붉은 옷에 虎頭 혁띠의 바지를 입었고 오색수에 칼을 차고 있었으며, 수염은 적었으나 누런색이었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사람 모습이었다. 그리고 羽車를 탔는데 다섯 마리 용이 끌고 있으며 그 용들은 각기 다른 색깔이었다. 온갖 깃발이 앞뒤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마치 대장군의 행렬처럼 빛나고 있었다. 열두 부대의 5백명 군사는 모두가 밀랍으로 그 입을 봉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치고 나팔 부는 자들이 모두가 기린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하늘에 매달려 운집하되 사람의 길을 따라 걷지는 않는 것이었다.<sup>19)</sup>

신선이 된 왕원의 행차는 장관이다. 한 장면에 五龍羽車와 수많은 기린이 영물로 동원되고 있다. 행차를 대규모로 설정하고 ‘대장군의 행렬처럼’이란 비유에서 보듯 세속 권력의 실태를 작중 묘사에 그대로 이입하였기 때문이다. 신선 성취는 겉으로 보아 세속의 성취와도 다르지 않는데, 이는 당대 독자들의 환경과 욕망에 부응하려는 의도의 표현으로 추정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팽조〉에서, 팽조가 시

303-305쪽, 319-321쪽 참조.

19) “未至經家，則聞金鼓籥管人馬之聲，…著遠遊冠，朱服虎頭鞶裳，五色綬帶劍，少鬚，黃色，長短中形人也。乘羽車，駕五龍，龍各異色。麾節幡旗，前後導從，威儀奕奕如大將軍也。有十二隊五百士，皆以腊密封其口。鼓吹皆乘麟，從天上來下，懸集，不從人道行也。”，〈王遠〉，갈홍/임동석, 앞의 책, 108-109쪽, 116쪽.

공 초월을 신선의 정체성으로 내세우지만,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세속의 성취와 쾌락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일 것이다.<sup>20)</sup> 이 장면에서도 신선의 신분에 따라 영물도 등차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다. 우두머리 왕원의 영물은 형형색색 오룡우거이며 배행들의 영물은 기린이다. 이 역시 작가가 현실의 위계와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배려한 장치일 것이다. 이런 양상에서 영물의 속화는 국한된 속화가 아니라 당대 민중의 욕구와 선계의 전체 구도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을 재차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茅君〉에서도 나타나며 정점에 도달한다. 모군은 열여덟 살에 향산으로 들어가 20년 동안 도술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가 효를 다하지 못했다고 꾸짖자, 모군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두 아우를 한나라 조정에 벼슬하게 하여 이천석의 지위에 오르게 한다. 가족의 세속 욕망을 충족시킨 후 모군은 신령세계로 직책을 수행하러 떠나며, 이 장면에서 여러 영물이 등장한다.

이튿날 신령 세계에서 모군의 부임을 맞으러 왔다. 그들 행렬의 문관은 붉은 옷에 보랏빛 띠를 둘렀으며 그 수는 수백 명이었고, 무관은 갑옷과 무기 깃발을 들었으며 그 무기와 의장은 해처럼 빛을 발하였고 그 수는 수천 명이었다. 모군은 이에 부모, 종친들과 이별의 말을 나누고는 드디어 우개거에 올라 떠났다. 그 필력이 많은 깃발 종류와 장식용 무기와 도끼의 모습은 마치 제왕의 행렬 같았다. 용, 호랑이, 기린, 백학, 사자 등을 타고 있었는데 그 기이한 짐승과 새들은 그 이름도 알 수 없었다. 새 수만 마리가 그들 위를 날면서 하늘을 덮고 있었으며 흐르는 구름과 채색의 놀이 그들 좌우를 돌면서 빛을 더하고 있었다. 그들이 집으로부터 10리쯤 이르렀을 때 홀연히 더 이상 보이지 않

20) “쟁조가 말하기를, …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비록 죽지 않는 목숨을 누린다고는 하나 모두가 사람의 인지상정을 버리고 영화와 쾌락을 떠난 것으로, …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도리란 응당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볍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남녀 음양을 통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며, 귀와 눈이 총명하기를 바라며, 골절이 강하기를 원하여 안색이 화택하고 늙어도 쇠하지 않으며 목숨이 늘어나 세상을 길이 보며 이 인간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어 한다. … 이렇게 하는 것을 귀한 것이라 한다(彭祖曰:…然有此等, 雖有不亡之壽, 皆去人情, 離榮樂, … 今之愚心未之願也. 人道當食甘旨, 服輕麗, 通陰陽, 處官秩, 耳目聰明, 骨節堅強, 顏色和澤, 老而不衰, 延年久視, 長在世間, … 乃可貴耳)”. 《彭祖》, 같은 책, 33-36쪽, 40-41쪽.

았다.<sup>21)</sup>

여러 영물이 등장하는 사례의 압권이다. 영물 ‘우개거’는 작중 화려하고 번잡한 정황으로 하여 고유 역할과 비중이 손색되어 있고, 배행들의 영물들인 ‘용, 호랑이, 기린, 백학, 사자’는 간단하게 열거되고 말며, 주변 동물<sup>22)</sup>인 ‘새 수 만 마리’와 별 차별과 차이가 없다. 이외에도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열선전》에서 대표 영물이었던 용이 그 열거의 대열에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과, ‘호랑이, 기린, 백학, 사자’는 《열선전》에 없고 《신선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영물들이라는 사실이다. 확실히 영물은 《열선전》 시대에 신선의 활동에 기여하며 신선과 더불어 후광을 발휘하던 고고한 위의를 상실하고 있다.<sup>23)</sup> 하지만 이런 변화에 맞물리며 작품의 작중 공간이 사회 현실로 확장되고 또 다른 조연 캐릭터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물에 등차를 두어 주로 신선들 사이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이러한 양상은 수하들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요재지이》의 〈辛十四娘〉과 〈仙人島〉에서 재현되며<sup>24)</sup>, 《야우추등록》의 〈馮鐵丸〉·〈郁線雲〉에서도 지속되고 있다.<sup>25)</sup>

21) “明日迎官來至，文官則朱衣紫帶，數百人；武官則甲兵旌旗，器仗耀日，千餘人，茅君乃與父母宗親辭別，乃登羽蓋車而去，麾幢幡蓋，旌節旄鉞，如帝王也。驂駕龍·虎·麒麟·白鶴·獅子，奇獸異禽，不可名識。飛鳥數萬，翔覆其上。流云彩霞，霏霏繞其左右。去家十餘里，忽然不見。” 〈茅君〉， 같은 책, 181-182쪽, 185쪽.

22) 참고, 〈동물 신선 모티프의 내원과 두 시대의 양상〉 (《중국학논총》 제18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04. 12), 334-355쪽 참조.

23) 이외 관련 작품으로, 〈이소군〉과 〈東郭延〉이 있다. “(안기가) 그러고는 (이소군에게) 신단 鱸火와 飛雪의 비방, 서약하는 구절을 전수해 주고는 이를 마치자 잠시 뒤, 용과 호랑이를 탄 수백 명의 인도자들이 안기를 맞이하러 나타났으며 안기는 우거를 타고 승천하였다. (因授神丹 鱸火·飛雪之方，誓約口訣，畢，須臾，有乘龍虎導引數百人，迎安期，安期乘羽車而昇天也)”, 〈이소군〉, 갈홍/임동석, 앞의 책, 215쪽, 223쪽. “그는 고향에 살면서 4백 살이 되도록 늙지 않았다. 그러던 중 건안 21년 어느 날 몇 십 명의 사람이 호랑이와 표범을 타고 나타나 그를 맞아 갔으며 이웃 사람들은 모두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친척, 친구들과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곤륜대로 간다.”(在鄉里四百歲不老。漢建安二十一年，一旦，有數十人乘虎豹之來迎之，鄰盡見之。乃與親故別而辭去，云：詣崑崙臺。”， 〈東郭延〉， 같은 책, 258-259쪽, 259쪽.

24) 참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2006. 12) 413쪽, 421쪽 참조.

25) 참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2007. 12) 315-316쪽, 323-324쪽 참조.

〈李少君〉에서도 같은 사례가 등장하는데 위 사례와 성격이 달라 따로 살펴 둘 필요가 있다. 위 사례들은 모두 한 장면에서 簇出하는 경우인데, 〈李少君〉에서는 장면을 달리 하고 있으며 장면마다 출현하는 영물이 단일하기도 하다.

그날 밤, 무제는 꿈에 이소군과 함께 송고산에 올랐는데 도중에 비단 수를 놓은 사자가 나타나 용을 타고 부절을 들고 구름 속에서 내려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sup>26)</sup>

이 대목은 전개의 한 부분이다. 다음은 결말의 한 부분으로, 이소군이 시해선이 된 후 그 성취가 입증되는 장면이다.

이윽고 염을 하려 하자 홀연히 그의 몸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 안팎의 띠는 풀지 않은 채로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은 것과 같았다. 이에 그 옷가지만으로 장례를 치렀다. 백 여일이 지난 후 어떤 길 가던 사람이 하동의 포판사에서 이소군을 보았는데 그는 푸른 노새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제는 이를 듣고 그 관을 열어 보도록 하였다. 오직 신발만 그 안에 남아 있을 뿐이었다.<sup>27)</sup>

작중에서 이 현상은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러한 양상도 《열선전》과의 차이로 주목되어야 한다. 《열선전》과는 달리 서사가 확대되면서, 이소군의 활동과 그 후일담으로 나뉜 준 액자구조 구성에다 지난 사건을 뒤에 배치한 데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聊齋志異》의 〈白于玉〉·〈仙人島〉·〈蘇仙〉<sup>28)</sup>과 《야우추등록》의 〈海大瘤〉·〈郁線雲〉·〈范小仙〉<sup>29)</sup>, 〈鐵籊緣〉·〈清波公

26) “其夜, 武帝夢與少君俱上崇高上, 半道有繡衣使者, 乘龍持節從雲中下, 言.”, 〈李少君〉, 갈홍/임동석, 앞의 책, 219쪽, 224쪽.

27) “既斂之, 忽失其所在, 中表衣帶不解, 如蟬蛻也, 於是爲殯其衣物。百餘日, 行人有見少君在河東蒲坂市者, 乘青驪, 帝聞之, 使發其棺, 棺中无所復有, 釘亦不脫, 唯餘履在耳.”, 〈李少君〉, 같은 책, 220쪽, 224쪽.

28) 줄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2006. 12) 415-416쪽, 419-421쪽, 424-425쪽 참조.

29) 줄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2007. 12)

子》30)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3) 한 인물이 상황에 따라 다른 영물을 활용하는 양상: 〈王遠〉 · 〈茅君〉 · 〈李少君〉

이 양상 역시 《열선전》에서는 없었다. 앞 양상에서처럼 영물의 위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가운데 현실과의 개연성을 배려하는 작의를 더욱 확인할 수 있고, 한편 《열선전》에서 정립된, 영물의 조력자 역할을 다시 성찰하게도 한다.

왕원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혹 백관을 모두 거느릴 수 없을 수도 있어 오직 하나의 누런 기린을 타고 순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그들의 시중을 받습니다.<sup>31)</sup>

앞 검토에서 일부 살펴보았던 〈王遠〉의 결말 부분이며, 채경의 부모가 채경에게 왕원이 어떤 존재냐고 묻자 채경이 한 대답이다. 이미 점검되었듯이 왕원이 채경의 집에 올 때 영물은 ‘五龍羽車’였는데 여기서는 ‘기린’이 영물이다. 이러한 교체는 ‘혹 백관을 모두 거느릴 수 없을 수도 있어’에서 알 수 있듯, 사정에 따라 모든 수행원을 행차에 참여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오룡우거’ 대신에 ‘기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황제의 행차도 행사에 따라 의전儀典의 규모와 내용이 달랐으며, 이 대목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배려라고 하겠다. 이처럼 작가는 도술 이외의 작중 조건을 가능한 한 현실과 상동하게 하려는 작의를 지녔으며, 이 때문에 한 작품에서 한 인물이 작중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영물을 동반하는 양상이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영물의 위위는 축소되었으나 리얼리티와 적정성이 점증되면서 역시 당대 독자들에게 전체 이야기를 수용시키고 동의를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茅君〉과 〈李少君〉에서도 출현한다. 앞에서

300-302쪽, 323-325쪽, 326-330쪽 참조.

30) 줄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3집, 2008. 12) 339-340쪽, 342-348쪽 참조.

31) “王君出時, 或不盡將百官, 惟乘一黃麟, 將士數十人侍.”. 갈홍/임동석, 앞의 책, 114쪽, 118쪽.

살펴본 대로 모군은 羽蓋車를 타고 신령 세계로 떠났으나, 이후 모군은 뜻을 이룬 형제와 만날 때는 흰 학을 탄다.

뒤에 매월 12월 2일, 3월 18일이 되면 세 형제는 각기 한 마리씩의 흰 학을 타고 그 산 정상 봉우리에 모여 만난다고 한다.<sup>32)</sup>

형제들의 회합에서 우개거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李少君〉에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 전자는 이소군이 한무제에게 成仙 비결을 바치는 장면의 대사로서이며, 후자는 이소군이 표를 올리는 장면의 대사로서이다.

(이소군은) 그러고는 무제에게 비방을 바쳤다. “저는 수은을 응고시켜 백은을 만들 수 있고, 단사를 날려 황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선의 능력이란 무궁하여 몸에 붙고 빛나는 것이 생겨나며, 또 둥그런 원광의 날개가 갖추어지기도 합니다. 몸을 솟구치면 하늘을 넘지러 수 있고 엎드려 들어가면 무간의 세상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비룡을 제어하여 八遐까지 두루 다닐 수 있고, 흰 고니를 타고 九陔까지 빙빙 돌아 즉시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습니다.”<sup>33)</sup>

“그대는 신규 神虬를 타고 상승하게 되며, 雲車를 몰아 먼 곳까지 월섭할 수 있습니다.”<sup>34)</sup>

八遐에는 비룡이 어울리고 九陔에는 흰 고니가 어울리며, 신규는 상승에 적합하며 운거는 먼 곳으로의 비월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역시 적정성을 고려한 이러한 양상은 《요재지이》의 〈仙人島〉<sup>35)</sup>와 《야우추등록》의 〈離婚婿〉<sup>36)</sup>에서도

32) “后每十二月二日，三月八日，三君各乘一白鶴，集於峰頂也。”，같은 책，183쪽，186쪽.

33) “乃以方上武帝，言：「臣能凝汞成白銀，飛丹似成黃金，金成服之，白日昇天，神仙無窮，身生朱陽之羽，體備圓光之翼；竦則凌天，伏入無間；控飛龍而八遐已遍，駕白鴻而九陔立周。」，〈李少君〉，같은 책，216쪽，223쪽.

34) “爾乃駕神虬以上昇，騁雲車以涉遠。”，〈李少君〉，같은 책，219쪽，224쪽.

35) 참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2006. 12) 420-422쪽 참조.

지속되고 있다.

#### (4) 성선 입증 역할 약화 양상: 〈魯女生〉 · 〈劉根〉

《열선전》에서 정립된 영물의 역할은 세 가지로, 첫째 성선 입증, 둘째 신선의 능력 발휘에의 기여, 셋째 신선의 인간에게의 시혜였다. 《신선전》의 작품들에서도 이 세 역할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으나, 가장 큰 역할이었던 첫째 역할이 약화되어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사정과도 관련되지만 다음 〈노여생〉에서 보듯 영물을 동반시켜 문체 인물이 신선임을 입증하고 나서도 그 직후에 같은 기능을 가진 부연을 추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노여생은 장락 사람이다. 호마와 이출을 복용하며 곡식을 끊기를 80여년에 심히 짧아져서 하루에 3백 리를 갈 수 있었으며 뛰는 사슴을 쫓을 정도로 빨랐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 그를 보았다. 그리고 2백여 년 뒤 그는 화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당시 친구 중에 한 이가 그와 이별한 지 50여년 뒤에 화산의 사당에 갔더니 그는 백록을 타고 있었으며 뒤에 그를 시종하는 옥녀가 수십 인이더라는 것이었다.<sup>37)</sup>

노여생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 신선임이 영물 백록으로 입증되었으나, 말미에서 보듯 '뒤에 그를 시종하는 옥녀가 수십 인이더라는 것이었다'는 부연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추가는 《열선전》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열선전》의 각도와 관행으로 보면 부화한 부연에 지나지 않는다. 추가의 의도는 백록을 이어, 노여생의 신선 성취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동시에, 제자이면서도 시종인 옥녀가 수십 인일 정도로 노여생이 대단한 신선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것이다. 위에서 살

36) 참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2007. 12) 306-311쪽 참조.

37) “魯女生者, 長樂人也. 服胡麻餌術, 絕穀八十餘年, 甚少壯, 一日行三百餘里, 走逐麋鹿, 鄉里人傳世見之. 二百餘年, 入華山中去時故人与女生別后五十年, 入華山廟, 逢女生, 乘白鹿, 從后有玉女數十人也.” 〈魯女生〉, 갈홍/임동석, 앞의 책, 394쪽.

펴본 세속화 경향을 이 양상에서도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유근〉에서 확대 출현한다.

少室山 사당지기 왕진은 기쁨에 찬 유근의 안색을 자주 보고 한 번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유근이 처음 도를 얻게 된 연유를 알려 달라고 청원하였다. 유근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옛날 나는 산에 들어가 깊이 사색하며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뒤에 華陰山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韓衆)는 백록을 타고 있었으며 따르는 자가 수천 명이였다. 그의 좌우에 玉女 네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나이가 모두 열대여섯 정도였다.”<sup>38)</sup>

‘따르는 자가 수천 명이였다. 그의 좌우에는 옥녀 네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나이가 모두 열대여섯 정도였다’에서 보듯, 한중도 시봉하는 옥녀를 거느릴 뿐만 아니라 제자가 수천 명이나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작중 유근과 작가의 의도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에서도 영물인 백록의 신선 입증 역할과 위기가 약화되고 있지만 《신선전》 시대의 도교 교단 성립과 활동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규모는 작지만 같은 성격의 양상이 《요재지이》의 〈辛十四娘〉<sup>39)</sup>과 《야우추등록》의 〈迦陵配〉·〈離婚婿〉·〈馮鐵丸〉에서도<sup>40)</sup> 지속되고 있다.

## 2) 작품 내부의 요구에 따른 축소와 확대 양상

앞에서 일부 검토하였지만 《신선전》은, 편저자 갈홍의 서문에서도 알 수 있듯

38) “少室廟緣王珍, 數得見根顏色權悅之情, 伏地叩頭, 請問根從初得道之由, 根說: 「昔入山精思, 無處不到, 後入華陰山, 見一人乘白鹿, 從千餘人, 玉女左右, 四人執彩旛之節, 年皆十五六.」, 〈劉根〉, 같은 책, 331쪽, 335쪽.

39) 줄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2006. 12) 413쪽 참조.

40) 줄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2007. 12) 300쪽, 312쪽, 317쪽 참조.



효용론의 차원에서 기획되고 출간되었다. 갈홍은 《신선전》을 통해 독자들에게 仙道の 實在을 입증하고 전파하며 반대파의 공격을 차단하고 무시하려고 하였다.<sup>41)</sup> 다시 말해 《신선전》의 작품들은 갈홍의 그러한 의도에 따라 수정과 윤색을 거쳤을 것이며, 갈홍의 창작도 다수 삽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42)</sup> 선도에 毀譽褒貶과 현실의 공과가 어우러진 상황을 《열선전》에서와 같은 단편 서사로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서사의 편폭이 늘어나야 했고, 현실을 무대를 하면서도 언행에 개연성이 부여되어야 하였으며, 도교의 권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지문과 등장인물의 대사에서 각종 이론이 진술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신선전》이 중국소설의 발전에 기여<sup>43)</sup>하게 된 것은 갈홍의 그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사정에서 《신선전》의 작품들은, 《열선전》처럼 개인의 재능과 미덕으로 한 성선 성취<sup>44)</sup>만을 주제로 하거나 구성이 단순할 수 없었고, 영물만을 조연이나 조력자로 삼거나 그 묘사를 생략하기에는 미흡하였을 것이다. 신선 성취와 신선의 권

41) “내가 다시 고대 선인들의 일을 모아 편집한 이 책은 ... 진리를 알고 식견이 높은 선비들에게 전해 주기 위함이다. 그중에 속세에 묶여 있는 무리들이나 미세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라면 역시 억지로 이를 보라고 하지 않겠다.(予今彙抄集古之仙者, … 以傳知眞識遠之士. 其系俗之徒, 思不輕微者, 亦不強以示之.)”, 〈序〉, 갈홍/임동석, 앞의 책, 17쪽, 18쪽.

42) 갈홍은 《陰長生》에서 직접 전지시점 서술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나 갈홍이 듣기로, 언서에 ‘한밤중에 밤길을 다녀보지 아니하면, 밤길을 다니는 자를 이해하지 못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선도를 얻지 못한 자가 어찌 천하 산림에 도를 배워 선도를 터득한 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는가?(洪期諺書有之曰: 子不夜行. 不知道上有夜行人. 故不得仙者, 亦安知天下山林間有學道得仙者耶?)’, 같은 책 169쪽, 173쪽. 한편 이 대사의 내용 또한, 선도를 불신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무마하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어 흥미롭다.

43) 필요하여 前稿에 이어 다시 참조한다. 우찌야마는 구성 확대, 새로운 일화 첨가, 지식인 수도자 증대, 수행담, 秘籍과 이론, 도술 증량을 주목하였고(內山知也, 〈仙學の展開〉, 《大東文化大紀要》, 日本 1974, No. 13, 110-111쪽. 정재서, 앞의 책, 111-112쪽 참조). 전인초는 중국소설사의 관점에서 《신선전》의 〈白石生〉, 〈左慈〉의 인물 구성 주제를 검토하며 《신선전》이志怪양식의 속성을 담은 중국소설 형성기의 주요 작품집이고, 唐代 傳奇의 출현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神仙傳研究〉, 《연세논총》 1985, 65쪽). 한경아는 〈老子〉, 〈彭祖〉, 〈劉根〉 등을 검토하며 설화성을 경신한 서사요소의 발전 양상을 검증하였으며(《神仙傳》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67-89쪽), 그 과정에서, 李諭國의, 작품의 길이, 주인공 행적 부연, 문장의 분석성 주목(《唐前志怪小說史》, 南開大學校 出版部, 1984, 318쪽)과 侯志義의, 상황 묘사 내용 증가 구조 확대 주목(《中國歷代小說叢編》, 雲南人民出版社, 1986, 40-41쪽)을 소개하고 있다.(한경아, 같은 논문, 67쪽, 82쪽.)

44) 김장환, 〈열선전에 대하여〉, 《열선전》(유형 지음/김장환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6) 28쪽 참조.

능을 독자가 주목하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영물을 배치하였지만 작중 구조가 달라지면서 그 내부의 요구에 따라서도 영물은 다음처럼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1) 주제: 〈沈羲〉

심희는 오군 사람이다. 촉 중에서 도를 배웠지만 단지 재앙을 소멸하고 병을 치료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만 능할 뿐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의 공덕이 하늘에 알려져 천신이 이를 알게 되었다.<sup>45)</sup>

심희는 선도를 배웠고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선행을 하지만, 약물 복용을 추구하지 않아 신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열선전》과는 다르며 또 민간도교의 입장이 아니라 관방도교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단되고 있고, 여러 함축이 있는 천계의 ‘천신(황로)’이 등장하고 있다. 즉, 심희의 상황은 作意의 기본 전제이면서도 천신을 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해결과정에서 영물이 등장하는데, 등장하기는 하지만 선관들의 하강에 사역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거의 선관들을 장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희는 … 도중에서 홀연히 백록거, 청룡거, 백호거의 수레 하나씩에 뒤에 수십 기의 기마병이 따르는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모두가 붉은 옷에 창을 들고 있었으며 칼을 차고 울긋불긋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 그러자 말을 타고 있던 관리가 말하였다. “심희는 백성에게 공덕을 베풀며 마음속에서 도를 잊지 않고 있소. … 그런데 수명이 길지 않아 그의 복을 계산하면 곧 끝나게 되어 있소. 황로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 지금 우리를 파견하여 그대를 맞으러 온 것이니요. 시랑 벼슬의 박연이 바로 저 백록거를 타고 있는 분이요, 도세군 사마생이 바로 청룡거를 타고 있는 분이요, 송영의 임무를 맡은 서복이 바로 백호거를 타고 계신 분입니다.” … 선인은 다시 심희를 벽락시랑으로 임명한다고

45) “沈羲者，吳郡人也。學道於蜀中，但能消災治病，救濟百姓，而不知服食藥物。功德感於天，天神識之。” 갈홍 찬/임동석, 앞의 책, 86쪽, 89쪽.

하면서 오월 지역 사람들의 생사에 관한 호적을 주관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고는 심희를 수레에 싣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sup>46)</sup>

여기서 영물로 백록거, 청룡거, 백호거가 출현하는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역할의 비중이 낮고 위엄이 없으며 다른 정황들 때문에 부각되지도 않고 있다. 또 백록, 청룡, 백호가 단독으로 영물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수레에 종속된 도구처럼 그려져 거의 세속의 승물에 비견될 정도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주제가 '각각 소임을 맡은 천관들로 구성된 천계가 실재하며 천신이 심희를 구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는 작품 내부의 요구에 따른 부응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영물을 강조하였다면 주제를 부각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었을 수도 있다. 《열선전》에서 영물은 고유 캐릭터이면서도 단독으로 미지의 천계 전체를 대변하는 提喻로서도 기능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천계와 천신이라는 다른 조력자가 등장하고 그 役事가 그려지면서 그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이런 양상은 《요제지이》의 〈彭海秋〉<sup>47)</sup>와 《야우추등록》의 〈清波公子〉에서도 지속되고 있다.<sup>48)</sup> 같은 사정에서 영물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다음 작품에서 영물은 구성에 관여되어 역할과 비중이 확대된다.

## (2) 구성과 변신 모티프: 〈壺公〉

〈壺公〉에서 등장하는 영물은 푸른 대나무 지팡이이다. 신선 호공은 비장방이 독실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신선이 되는 시험을 하기 위해 자신을 따라나설 것인지 의향을 묻는다.

46) “義·道次忽逢白鹿車一乘·青龍車一乘·白虎車一乘，從數十騎，皆是朱衣仗矛，帶劍，輝赫滿道。… 騎吏曰：義有功於民，心不忘道，從少已來，履行無過，壽命不長，算祿將盡，黃老愍之，今遣仙官來下迎之。侍郎專延者，白鹿車是也；1度世君司馬生者，青龍車是也；送迎使者徐福者，白虎車是也。… (仙人)云拜義爲碧落侍郎，主吳越生死之籍，遂載義昇天。” 같은 책, 86-87쪽, 89-90쪽.

47) 줄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12) 417-419쪽 참조.

48) 줄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변화 양상〉(《중어중문학》 제43집, 2008. 12) 343-348쪽 참조.

“나는 모일에 의당 떠나야 하오. 그대도 같이 가시겠소?” 비장방이 말하였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다만 친척들이 알지도 못하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호공이 말하였다. “아주 쉽지요.” 이에 푸른 대나무지팡이를 구해 비장방에게 주면서 이렇게 경계시켰다. “그대는 이 대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시오. 그런 후에 이 지팡이를 그대가 누워 있던 자리에 두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곧 오게 될 것이요. 비장방이 집으로 돌아와 호공이 일러준 대로 하였다. 그러자 집안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여기고 울면서 장례를 치렀다.”<sup>49)</sup>

작품 결말에서 밝혀지지만 푸른 대나무 지팡이의 정체는 영물 청룡인데 이 발단에서 보듯 비장방의 시체로 변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속 관련 역할은 《열선전》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영물의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난 사례이다. 이후 비장방은 호공을 따라가 신선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세 번 시험 받았는데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 하였다.<sup>50)</sup> 이에 호공은 비장방에게 인간 세상을 주관하며 수백 세를 살게 해주겠다고 한다.

비장방은 집에 가는 방법이 없음을 걱정하였다. 그러자 호공이 대나무지팡이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것을 타면 집에 갈 수 있다.” … 그 지팡이를 타자 홀연히 잠을 자는 듯하더니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다. 집안사람들이 그를 귀신이라 여겼다. 비장방이 겪은 일을 모두 전하자 그 관을 열어 보았다. 오직 지팡이 하나가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다. 비장방은 자신이 타고 왔던 대나무 지팡이를 葛陂湖

49) “公告長房曰：我某日當去，卿能去否？長房曰：思去之心，不可妄言。惟欲令親屬不覺不知，當作何計？公曰：易耳。乃取一青竹杖與長房，戒之曰：卿以竹歸家，使稱病，後日即以此竹杖置臥處，嘿然便來。長房如公所言。而家人見此竹是長房死了，哭泣殯之。”，《壺公》，갈홍/임동석, 앞의 책, 345쪽, 349쪽.

50) 吳光正은 역대 신선 작품의 구조를 下凡歷劫 悟道成仙 成仙考驗 濟世降妖 型으로 분류하며(吳光正, 《中國古代小說的原型與母題》,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103-219쪽), 成仙考驗 型의 모델로 《신선전》의 〈魏伯陽〉, 〈李阿〉, 〈劉安〉, 〈陳安世〉, 〈陰長生〉, 〈李八百〉, 〈薊子訓〉, 〈張道陵〉을 예거하였는데, 오히려 이 《壺公》을 먼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에다 던졌다가 보았다. 그것은 바로 청룡이었다.<sup>51)</sup>

이 결말에서 보듯 대나무지팡이는 다시 등장하여 비장방의 세속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또 정체를 드러내면서 재차 주목을 끌고 있다. 대나무지팡이는 구성 상 이중 복선에 해당하며 작품에의 기여도가 작지 않다.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다’란 지문에서 알 수 있듯 작가일 수도 있는 전지서술자의 의도는 이적이라 할 비장방의 死生과 장수를 대나무지팡이를 매개로 구현하려 한 것이며 대나무지팡이를 변신모티프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주제를 형상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영물의 변신 모티프를 적용한 사례가 《열선전》에 있으나 역할과 비중이 낮고 주제와의 관계가 단순하기에 성격이 다르다.<sup>52)</sup> 이러한 변신모티프는 《요재지이》의 〈仙人島〉·〈何仙〉<sup>53)</sup>, 《야우추등록》의 〈髮繡佛〉·〈鹿女泉〉·〈郁線雲〉·〈范小仙〉·〈王大肉〉·〈石驢〉<sup>54)</sup>와 〈草龍道人〉·〈鐵籊緣〉·〈清波公子〉에서 같은 취지로 후속되고 있다.<sup>55)</sup>

### (3) 부연 수식: 〈葛玄〉

〈갈현〉에서 등장하는 영물 八景玉輿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 수식이 첨가되어 있다.

51) “長房憂不能到家，公以竹杖与之曰：「但騎此到家耳。」… 騎杖忽然如睡，已到家。家人謂之鬼。具述前事，乃發視棺中惟一竹杖，乃信之。長房以所騎竹杖投葛陂中，視之，乃青龍耳。”，〈壺公〉，같은 책, 346쪽, 350쪽.

52) 줄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7집, 2005. 12) 쪽186 참조. 신선이 호자선과 주모에게 띠풀개를 한 마리 씩 주었는데 곧 영물 용으로 변신하여 그들을 선계로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

53) 줄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2006. 12) 422쪽, 426-428쪽 참조.

54) 줄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2007. 12) 303-305쪽, 317-320쪽, 325-326쪽, 334쪽 참조.

55) 줄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3집, 2008. 12) 326-338쪽, 340-342쪽, 347-348쪽 참조.

오랜 시간이 흐르고 太上老君이 다시 세 眞人と 함께 나타났다. 목 뒤에 둥그런 광채가 났다. 八景玉輿라는 수레를 타고 있었는데 그 수레는 寶蓋, 幡, 幢, 旌節을 갖추어 공중에 휘황한 빛이 번쩍거렸다.<sup>56)</sup>

‘寶蓋, 幡, 幢, 旌節을 갖추어 공중에 휘황한 빛이 번쩍거렸다’는 묘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체는 범상하고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열선전》의 작품들에서는 영물에 이러한 부연 묘사가 없었다. 이 묘사의 의도 역시, 영물의 부각은 물론이고 그보다는 태상노군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요재지이》의 〈仙人島〉<sup>57)</sup>와 《야우추등록》의 〈髮繡佛〉에서도 지속되고 있다.<sup>58)</sup>

### 3. 결론

《신선전》의 위진시대는 대략 동한 이전 《열선전》의 시대에 비해, 동한 말의 혼란, 삼국의 오랜 쟁투, 위의 건국, 진으로의 교체와 팔왕의 난, 이족의 침입과 천도 등으로 하여 귀족과 민중의 삶에 부침이 연속되던 시대였다. 한편 이 시기에 선도는 여러 이론의 계발과 전개에 힘입어 일정한 집단의 취향과 지향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체계를 갖춘 교단이 조직되었고 다중의 교도들이 교리에 따라 활동하였으며, 그 활동에서 事變과 일탈이 없을 수 없어 이성 중심 유가의 견제와 지탄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세속의 부조리와 고통이 증대되면서 안녕과 향유의 욕망 또한 증대되어 가던 아이러니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윤색되고 저작된 《신선전》의 작품들은 작중 주인공의 시대를 떠나, 위진시대의 그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열선전》의 작품들을 모델로 하고 세속 초월을 지향하되

56) “久之, 太上又與三眞人, 項負圓光, 乘八景玉輿, 寶蓋 幡·幢 旌節, 煥耀空中.”, 〈葛女〉, 갈홍/임동석, 앞의 책, 288쪽, 290쪽.

57) 줄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2006. 12) 422쪽 참조.

58) 줄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2007. 12) 304쪽 참조.

당대 독자의 공명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속 현실과 욕망에 관련시켜 이야기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연장시키려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갈홍의 서문에서부터 엿볼 수 있었다.

본고는 전고에 이어, 신선사상의 두 본질인 불사(시간 초월)와 비승(공간 초월) 중 후자의 記標라고 할 영물을 초점으로 하여 《열선전》과 다르게 《신선전》에서 처음 나타나는 새 양상을, 후대에 전승되고 있거나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전제로 점검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역대 신선 관련 작품을 계통화하며 그 추이를 관통할 수 있는 관점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문학사 건지의 모티프 고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다섯 가지 양상을 조명할 수 있었다.

중첩영물 등장 양상(〈衛叔卿〉), 한 작품에 여러 영물이 등장하는 양상(〈王遠〉·〈茅君〉·〈李少君〉), 한 인물이 상황에 따라 다른 영물을 활용하는 양상(〈王遠〉·〈李少君〉), 성선 입증 역할 약화 양상(〈魯女生〉·〈劉根〉), 작품 내부의 요구, 즉 주제(〈沈羲〉), 구성과 변신모티프(〈壺公〉), 부연수식(〈葛玄〉))에 따른 축소와 확대 양상이다.

이 중 중첩영물 등장 양상과 한 작품에 여러 영물이 등장하는 양상은, 선계의 모습과 구조를 상상하며 仙話에 당대의 신분과 위계의 질서를 반영한 사례이며, 한 인물이 상황에 따라 다른 영물을 활용하는 양상도 이를 바탕으로, 사정에 따른 적합성을 도모하여 리얼리티를 부여하려는 의도의 산물이고, 성선 입증 역할 약화 양상은 이상 사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국면이며, 작품 내부의 요구에 따른 축소와 확대는 효용론을 전제로 작품 내부를 조정한 결과들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들은 전고에서 점검한 도사의 영물 활용과 더불어 영물의 위상과 역할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시킨다. 그런 한편 당대의 현실 수용, 새롭고 다채로운 영물들의 출현, 세부 리얼리티와 적정성의 점증, 조연들의 등장, 작중 공간의 사회로의 확대, 구성의 발전 등에 기여하거나 관련되어 있어, 선화가 소설로 발전하는 계기를 살피는 데에서 한 초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 《신선전》의 이러한 성과는, 영물의 원형이, 신선의 원형이기도 한,

《산해경》의 神鳥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뜻 깊고, 후대 작품들이 《신선전》에서 새로 시도된 그 양상들을 모티프로 삼아 지속하거나 변화시키며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뜻 깊다. 18세기 《요재지이》와 19세기 《야우추등록》에서 확인한 대로, 역대 신선 관련 작품 고찰에서 특히 영물의 활동 양상 점검에서, 《신선전》은 그 분석에서 필수로 참조하여야 할 텍스트라고 하겠다.

끝으로 《신선전》에서 등장한 영물들을 정리한다. 전고에서 확인한 《신선전》의 영물은, 말[진흙 환](〈玉子〉), 푸른 노새(〈尹軌〉), 부적, 단서(〈李意期〉), 푸른 소(〈蘊子訓〉·〈封君達〉), 대나무 지팡이(〈介象〉)였으며<sup>59)</sup>, 본고에서 확인한 영물은 구름, 흰 사슴(〈衛叔卿〉), 오룡우거, 기린(〈王遠〉), 우개거, 흰 학, 용, 호랑이, 기린, 흰 학, 사자(〈茅君〉), 용, 푸른 노새, 흰 고니, 신규, 운거(〈李少君〉), 백록거, 청룡거, 백호거(〈沈羲〉), 푸른 대나무 지팡이(〈壺公〉), 팔경옥여(〈葛女〉)이다. 중복을 정리하면, 말, 푸른 노새, 부적, 단서, 푸른 소, 푸른 대나무 지팡이, 구름, 흰 사슴, 오룡우거, 기린, 우개거, 흰 학, 용, 호랑이, 사자, 흰 고니, 신규, 운거, 백록거, 청룡거, 백호거, 팔경옥여 22종이다. 《열선전》에 등장한 영물은 12종으로, 용, 봉황, 잉어, 거마, 사람, 학, 개, 오이, 풍우, 연기, 바람, 나무양이다.<sup>60)</sup> 따라서 《신선전》이 《열선전》에서 답습하였다고 할 ‘용’ ‘학’ 과, 변형하여 차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말, 오룡우거, 청룡거, 운거를 제외하면, 새로 제시된 영물은, 푸른 노새, 부적, 단서, 푸른 소, 푸른 대나무 지팡이, 구름, 흰 사슴, 기린, 우개거, 호랑이, 사자, 흰 고니, 신규, 백록거, 백호거, 팔경옥여 16종이다. 새삼스럽지만 이들은 해당 작품에서 등장하는 도사나 신선들의 성격에서 비롯된 캐릭터들이며, 한편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신선전》이 영물의 역사에서 후대에 유산으로 남긴 주요 이미지들로서 후대 작품들의 차용과 변용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모티프들이기도 하다.<sup>61)</sup>

59) 줄고, 〈《神仙傳》 영물의 변화와 후대의 지속 양상〉 (《중국문화연구》 제17집, 2010. 12) 참조.

60) 줄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7집, 2005. 12) 405-412 쪽 참조.

61) 참고로, 그 색상 묘사에서 《열선전》에서는 붉은색, 흰색, 노란색이 주로 쓰였다면, 《신선전》에서는 붉은색, 흰색, 푸른색이 주로 보인다. 붉은 색과 흰색은 두 작품집에서 모두 보인다.



《參考文獻》

- 갈홍 찬, 임동석 역주, 《신선전》, 서울 · 고즈윈, 2006.
- 王明, 《抱朴子內篇校釋》, 북경 · 중화서국, 2007.
- 정재서, <《山海經》 神話와 神仙說話>, 『중국어문학』 제12집, 한국중어중문학회, 1986.
-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서울 · 민음사, 2005.
- 유향 지음/김장환 옮김, 《열선전》, 서울 · 예문서원, 1996.
- 蒲松齡저/朱其鎧 주편, 《聊齋志異》 上中下, 北京 · 人民大學出版社, 1989.
- 김혜경 옮김, 《요재지이》, 서울 · 민음사, 2002.
- 宣鼎 著/宋欣 校点, 《夜雨秋燈錄》, 長春 · 時代文藝出版社, 1987.
- 徐儀明, 冷天吉 公저, 《人仙之間》-《抱朴子》與中國文化, 開封 · 河南大學出版社, 1998.
- 趙 益, 《六朝南方神仙道教與文學》,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6.
- 吳九成, 《聊齋美學》, 廣東 ·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8.
-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天津 · 南開大學校 出版部, 1984.
- 候忠義, 《中國歷代小說辭典》, 雲南人民出版社, 1986.
- 吳光正, 《中國古代小說的原型與母題》, 北京 ·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 진인초, <《神仙傳》 研究>, 《연세논총》, 1985 .
- 한경아, <《神仙傳》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 졸고, <동물 신선 모티프의 내원과 두 시대의 양상>, 《중국학논총》 제18집, 한국중국 문화학회 2004. 12.
- 졸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7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12.
- 졸고, <《열선전》 영물의 내원과 그 지속과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39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6. 12.
- 졸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7. 12.
- 졸고, <《야우추등록》 영물의 변화 양상>, 《중어중문학》 제43집, 2008. 12.

색상이기에, 《열선전》은 노란 색, 《신선전》은 푸른색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색들의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은 본고가 의도한 바가 아니며 그 고찰에는 다른 참조와 시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후대 도사들의 도포의 색이 주로 푸른색인 것은 《신선전》의 영물 묘사에서 부각되는 푸른색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상징적 의미의 하나는 영물의 역할에서 유래하는 '신선 성취에의 지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 《中文提要》

魏晉南北朝是激烈動蕩的社會，人民百姓陷于水深火熱之中的時代，但另一方面也是探索人民的平安，追求人生的快樂的反諷時代。成書于該時期的《神仙傳》充分反映出了當時的時代情況。

本文是研究靈物的真面貌和形象的系列之一，擬分析探討《神仙傳》中的靈物角色反映現實之品級序列和符合作品要表達的邏輯。後來的神仙故事中的靈物可能繼承了《神仙傳》的這些靈物角色。這就是本文作為立論的前提。審察了五個樣相。

一是重疊靈物出現(互補作用)(〈衛叔卿〉)，二是一篇作品中出現多數靈物(〈王遠〉·〈茅君〉·〈李少君〉)，這是作家搭好仙境等級序列的架子，通過仙話反映當代嚴格的身份差異和封建品級序列差別。三是一個人物在不同情況下用不同的靈物(〈王遠〉·〈李少君〉)，也是作家要賦予與現實符合的真實性的用意。四是證明成仙的機能(作用)弱化，到了《神仙傳》中(〈魯女生〉和〈劉根〉)，不再只把靈物作為成仙判斷的條件了。五是《神仙傳》中靈物的作用根據作品的要求時而擴大時而縮小(〈沈羲〉·〈壺公〉·〈葛玄〉)，這與真實性有着密切的關係，可以推斷根據效用論調整為靈物的作用。另一方面是出現新靈物，生動地描繪了它的豐富多彩的形象，它與配角擴大作品的空間，貢獻於合理展開作品，又可以就它察看從仙話發展到小說的契機。

如若研究歷代有關神仙作品，特別是靈物，《神仙傳》是一定要參考的必備工具書。這是通過18世紀的《聊齋志異》和19世紀的《夜雨秋燈錄》已經証實的。

**关键词：** 靈物 神仙傳 重疊靈物 多數靈 真實性 效用論

이 논문은 2011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